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목심에 늘 멀면 복도 깨장 된다

말씀사경회 개최 한길교회

LA 코리아타운에 소재한 한길교회(4050 W. Pico Blvd., LA, CA 90019)가 9월 2일(금)부터 4일(주일)까지 '고백의 무게' 라는 주제로 말씀사경회를 연다. 사경회 강사로는 노진준 목사가 나선다. 노 목사는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을 나왔으며 코스타(KOSTA) 강사로도 활동했다. 또 LA 한길교회와 불티모어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했다.

- 사경회 시간과 주제는 다음과 같다.
- 9월 2일(금): 오후 7시30분, 베드로의 고백(요 21:15-17)
 - 9월 3일(토): 오전 6시, 마르다의 고백(요 11:17-27)
 - 9월 4일(일): 오전 9시, 아버지의 고백(막 9:19-24), 오전 11시 부끄러지 않은 고백(롬 5:1-6)

▶ 문의: (323) 735-0200

'밀알의 밤' 개최 남가주밀알선교단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이 9월 30(금)부터 10월2(주일)까지 '밀알의 밤' 을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걸그룹 '원더걸스' 의 전 리더로 현재 선교사의 사모인 '선예' (본명: 민선예)가 게스트로 나서 찬양과 간증을 전할 예정이다.

- 행사일시와 장소는 다음과 같다.
- 9월 30일(금): 오후 7시30분, ANC온누리교회(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 10월 1일(토): 오후 7시, 남가주새누리교회(975 S. Berendo St., LA, CA 90006).
 - 10월 2일(일): 오후 7시, 남가주사랑의교회(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밀알선교단은 2001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에게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274만8천200달러를 지급했다. 밀알의 밤 티켓 후원은 20달러다.

▶ 문의: (562) 229-0001

복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불자들은 복을 어떻게 보아야 하고 복을 쌓는 것, 복스럽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오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아흔 아홉석 갖고도 불행한 부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부터 다섯 가지 복, 즉 오복을 최고의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큰 복은 수명, 오래 사는 일이었습니다. 오래 오래 건강하게 살아 출세하고 부자가 되어서 자식을 많이 낳다가 편히 죽는 것이 전통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것을 한시적인 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욕심 가운데 즐거운 것과 좋은 것에 해당하는 '오욕락' 이라고 본 것입니다.

오욕락은 재욕, 성욕, 음식욕, 명예욕, 수면욕의 다섯 가지 욕망을 뜻합니다. 먹고자는 것이 인간이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맛있는 것만 찾으면 식탐이 됩니다. 잠도 문제입니다. 공부하는데 제일 큰 장애가 잠이지만 반대로 잠을 못 자는 것도 큰 병입니다. 이처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라도 지나치게 넘치면 불행, 재앙이 됩니다. 모든 것이 적당히 맞아야 합니다.

많이 가졌다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 합니다. 아흔 아홉 석 가진 사람이 한 석 채워 백 석 만들고 싶어 하고 백 석 가진 사람은 천석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이처럼 자기 주관적인 것입니다. 복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괴롭겠지만 심기일전하여 삶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괴로움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고 통탄하며 함몰돼 있으면 그 괴로움이 더 오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즉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지도론'의 말씀을 보면 '불도를 성취하려면 무릇 실천해야 할 것이 두 가지이니 첫째는 복덕이고 둘째는 지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혜, 선정의 육바라밀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처란 무엇인가? 사실 그 내용을 보면 복덕과 지혜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자 하나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은 복덕의 문이고 참선하고 독경하며 정진하는 것은 지혜의 문입니다. 여기 없어서 법문을 듣는 것은 지혜를 진작시키는 일이지만 동시에 이 시간에 보시를 하고 자리를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안내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모두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복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복은 평상시에 지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지어

야 합니다. 나와 남을 구분하지 말고 내가 지은 만큼 받는다는 생각으로 복을 지어야 합니다.

복을 오래 받으려면 복도 아껴야 합니다. 지금 형편이 좋고 살기가 편하다고 복을 함부로 막 쓰면 아무리 많은 복이라도 바닥이 드러나고 맙니다.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천상에 태어난 사람은 이전 생애 복을 많이 지어 복 저금을 많이 해 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상에 태어나서 그것을 계속 사용하면 마치 마일리지처럼 복이 바닥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껴 써야 합니다.

특히 복을 쓰되 나나 내 가족만을 위해 쓰지 말고 널리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써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복을 지을 만한 곳을 찾아다녀야 하고 꾸준히 널리 지어야 합니다. 즉 봉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위해 하는 모든 행동이 복입니다. 또 내가 입은 은혜를 갚는 것도 복을 짓는 일입니다. 이처럼 복도 잘 간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은 인생 만사에 쓰이지 않는 데가 없고 복으로 하지 못할 바가 없습니다. 적게는 한낱 미물 초목이 성불하는 것도 지어놓은 복이 없고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복은 지어만 놓으면 언제 어디서 나 여의보주와 같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스스로는 물론이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나아가 모든 중생들을 위해 늘 큰 복을 짓는 불자가 되길 바랍니다.

-법타스님-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1435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45에 있습니다)

7	9		3			8		6
		5		9				
4	6				2		5	
				2		4	3	
	8		6			7		
		9						2
6			1		7	9		
		4			9		7	
				3				8